

# 한국어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박현아, 강범모  
고려대학교 언어학과  
parkha@korea.ac.kr, bmkang@korea.ac.kr

## The Representation of Korean Predicative Noun

Hyun-A Park, Beom-Mo Kang  
Dept. of Linguistics, Korea University

### 요 약

본고는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을 말뭉치를 통해 살펴보고 실제로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이 나타나는 정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을 측정하기 위해 서술성 명사의 술어적 쓰임과 비술어적 쓰임을 구분하였는데, 이를 토대로 서술성 명사의 빈도와 서술성, 서술성 명사의 논항구조와 서술성, 서술성 명사가 가지는 구체물의 의미와 서술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서술성 명사와 동사의 공기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우선 서술성 명사와 공기하는 동사들 가운데 기능동사와 일반 동사의 사용 비율을 살핀 다음, 서술성과 기능동사 결합률, 기능동사의 어절별 분포, 기능동사별 구성 비율을 구하였다.

### 1. 서론

서술성 명사는 어휘의미적으로 독자적인 사건구조를 가짐으로써 논항을 취할 수 있는데, 이 논항은 통사적으로는 수의적인 의미적 논항이다. 따라서 서술성 명사는 (통사적) 논항을 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서술성 명사가 논항을 취하는 형태는 기능동사의 유무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데, 특히 서술성 명사가 기능동사 없이 홀로 논항을 취하는 경우는 서술성이 전면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본고는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을 측정하고, 빈도와 서술성, 논항구조와 서술성, 구체물의 의미 유무와 서술성의 관계를 알아본다. 또한 서술성 명사와 동사의

공기 양상을 살펴 서술성과 기능동사 결합률 사이의 관계와 기능동사의 어절별 분포 및 기능동사별 구성 비율도 함께 알아본다.

### 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의 연구 대상은 다음의 22개의 서술성 명사들이다<sup>1)</sup>.

1) 이 서술성 명사들은 세종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상위 빈도 80위 안에 포함되면서 각 논항구조를 대표하는 것들이다. 서술성 명사 다음에 숫자 표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어휘 정보이다.

- {행위주역}2): 일01
- {대상역}: 존재
- {경험주역, 대상역}: 생각01
- {행위주역, 대상역}: 사용04
- {행위주역, 도착점역}: 노력01, 참여
- {행위주역, 동반주역}: 관계05
- {행위주역, 자격역}: 생활
- {행위주역, 장소역}: 자리01
- {행위주역, 내용역}: 계획01
- {대상역, 도착점역}: 의미
- {대상역, 동반주역}: 반대03
- {행위주역, 대상역, 도착점역}: 말01, 교육
- {행위주역, 대상역, 결과상태역}: 표현
- {행위주역, 대상역, 출발점역}: 시작01
- {행위주역, 대상역, 도구역}: 구성07
- {행위주역, 대상역, 내용역}: 주장03
- {행위주역, 도착점역, 내용역}: 요구03
- {대상역, 근원점역, 도착점역}: 발전01
- {대상역, 근원점역, 결과상태역}: 변화
- {행위주역, 대상역, 도착점역, 내용역}: 대답

본고는 위의 서술성 명사가 실현되는 양상을 살핌으로써 첫째,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술어적 쓰임의 정도)을 측정하고 둘째, 서술성 명사와 공기하는 동사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첫 번째 연구를 위해 1000만 어절 규모의 세종 형태의미분석 말뭉치(2001년~2005년)와, 세종 형태분석 말뭉치의 일부를 구성하는 11만 어절 규모의 신문표제 말뭉치<sup>3)</sup>를 이용하여 서술성 명사의 용례를 추출하였다. 말뭉치별 용례 추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로부터는 서술성 명사별로 100개의 용례를 임의 추출하였다. 이때 추출 범위는 서술성 명사를 중심으로 좌우 일곱 어절까지로 하였다. 한편 신문표제 말뭉치는 규모가 작아서 직접 검색하는 방식으로 모든 용례를 추출하였는데, 각 명사별로 대체로 100개 미만의 용례를

2) 본고에서 사용한 의미역의 종류 및 논항구조는 홍계성 외(2004,2005)를 참고한 것이다.  
 3) 서술성 명사가 단독으로 논항을 취하는 예가 많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장르인 신문 표제만을 따로 추출하여 만든 말뭉치이다. 이것은 송경화(2006)로부터 입수한 자료이다.

얻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연구를 위해서는 세종 형태의미분석 말뭉치만을 이용하였다. 여기서는 적절한 프로그래밍을 통하여 서술성 명사와 공기하는 모든 동사의 목록을 구한 후, 상위 빈도 20위까지만 따로 추출하여 검토하였다.

### 3.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말뭉치로부터 추출된 용례는 크게 서술성 명사가 단독으로 하나의 어절을 이루는 것과 '-하다', '-되다', '-시키다'와 같은 접사(기능동사)와 함께 한 어절을 이루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본고의 직접적인 관심 대상은 전자의 경우이다. 이는 곧 서술성 명사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와 '-하다', '-되다', '-시키다'와 결합한 합성동사로 쓰이는 경우에 문장의 격투구조가 각각 다르게 실현될 것이라는 가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본고는 서술성 명사가 기능동사 없이 출현하였을 때 실제 술어로서 기능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술어적 쓰임'에 정리되어 있다.

#### 3.1 서술성 명사의 술어적 쓰임과 비술어적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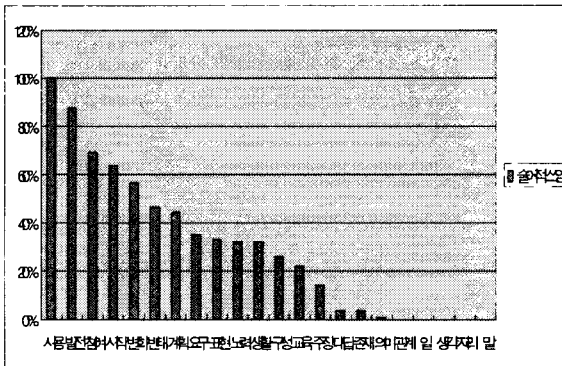
서술성 명사의 술어적 쓰임을 판단하기 위해 사용한 기준은 세 가지이다: 첫째 서술성 명사의 논항이 실현되었는가, 둘째 서술성 명사가 통사 구조상 서술어 자리에 나타났는가, 셋째 서술성 명사의 출현 환경이 맥락상 명백한 서술어 자리인가. 서술성 명사의 술어적 쓰임은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척도가 된다.

비술어적 쓰임은 서술성 명사가 단독으로 출현하면서 논항을 취하지 않고, 그 출현 환경이 술어 자리임을 확인해 주는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서술성 명사이지만, 그 자신이 다른 술어의 논항으로서 기능하거나 관형사나 관형절의 한정을 받는 등 일반적인 명사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와 같은 서술성 명사의 비술어적 쓰임은 서술성 명사의 명사성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척도로서 유용하다.

서술성 명사의 술어적 쓰임과 비술어적 쓰임의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은 서술성 명사의 전체 출현 횟수에서 서술성 명사가 합성동사의 형태로 나타난 횟수를 제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술성 명사가 단독으로 술어적/비술어적으로 쓰이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말뭉치에서 '사용'이 포함된 용례를 추출하면 '사용하다', '사용되다' 등도 결과물에 포함된다. 본고는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을 보다 엄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서술성 명사가 기능동사와 함께 쓰인 경우는 제외하고 '컴퓨터 사용', '컴퓨터를 사용' 등과 같은 경우만을 살핀다.

아래의 (1), (2)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서술성 명사의 술어적 쓰임, 즉 서술성을 나타낸다.

<그림 1>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의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1) 형태의미분석말뭉치에 실현된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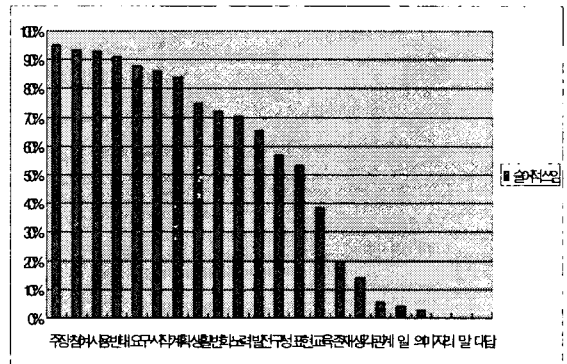
사용(100%)<sup>4)</sup> > 발전(87%)<sup>5)</sup> > 참여(69%) > 시작(64%) > 변화(57%) > 반대(47%) > 계획(44%) > 요구(35%)

4) 세종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추출한 '사용'의 용례 100개 가운데 '사용하다'가 71회, '사용되다'가 16회 출현하였다. 따라서 '사용'이 기능동사와 결합하지 않은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는 13회인데, 이들은 모두 논항을 취하는 술어적 쓰임을 보이므로 그 서술성은 100%로 수치화 된다.

5) '발전'은 용례 100개 중에서 '발전하다'가 24회, '발전되다'가 2회, '발전시키다'가 11회 출현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제외한 나머지 63개의 용례에서 술어적 쓰임이 55회, 비술어적 쓰임이 8회로 나타나, '발전'의 서술성은 87%로 계산된다.

> 표현(33%) > 노력, 생활(32%) > 구성(26%) > 교육(22%) > 주장(14%) > 대답, 존재(4%) > 의미(1%) > 관계, 일, 생각, 자리, 말(0%)

<그림 2> 신문 표제 말뭉치에서의 서술성 명사의 실현 양상



(2) 신문표제 말뭉치에 실현된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

주장(95%) > 참여, 사용(93%) > 반대(91%) > 요구(88%) > 시작(86%) > 계획(84%) > 생활(75%) > 변화(72%) > 노력(70%) > 발전(65%) > 구성(57%) > 표현(53%) > 교육(38%) > 존재(20%) > 생각(14%) > 관계(5%) > 일(4%) > 의미(3%) > 자리, 말, 대담(0%)

(1)과 (2)는 서술성 명사가 가지는 서술성이 개별 어휘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강범모(2001:18)에서 지적한 '술어 명사성'의 차이를 실제로 확인한 것이며, 가장 전형적인 서술성 명사와 가장 비전형적인 서술성 명사 사이에 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서술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이다. 한편, 신문 표제 말뭉치와 형태의미분석 말뭉치 사이에 나타나는 명사의 서술성 차이는 장르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신문 표제 말뭉치에 실현된 서술성 명사의 분석 결과는 서술성 명사가 술어로 기능할 수 있는 최대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3.2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

서술성 명사의 용례 분석을 통해 수치화한 서술성이 서술성 명사의 빈도<sup>6)</sup>, 논항구조, 구체물 의미 유무와 각각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표 1> 빈도순으로 살펴본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

빈도 순위	서술성 명사	형태의미분석말뭉치에서의 서술성	신문표제말뭉치에서의 서술성
1	말	0%	0%
2	일	0%	4%
3	생각	0%	14%
4	관계	0%	5%
5	시작	64%	86%
6	교육	22%	38%
7	생활	32%	75%
10	의미	1%	3%
12	사용	100%	93%
13	자리	0%	0%
14	주장	14%	95%
21	변화	57%	72%
23	발전	87%	65%
25	계획	44%	84%
27	요구	35%	88%
30	존재	4%	20%
36	표현	33%	53%
44	노력	32%	70%
51	구성	26%	57%
68	대답	4%	0%
72	반대	47%	91%
78	참여	69%	93%

서술성 명사의 출현 빈도와 그것의 서술성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를 규정하기 어렵다. 다만, '사용, 발전, 대답'을 제외한 모든 서술성 명사들의 서술성이 신문표제 말

6) <표 1>에 제시된 빈도 순위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산출되었다. 첫째, 세종 전자사전에서 서술성 명사의 목록을 추출한다. 둘째, 세종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에서 서술성 명사의 빈도를 구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렬한다. 셋째, 빈도 1000 이상의 서술성 명사의 목록 중에서 관계명사 등은 제외시킨다.

뭉치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경향 정도만 파악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문표제 말뭉치에서는 모든 서술성 명사가 두드러지게 술어적으로 쓰일 것이라는 예상을 빚나가고 있다.

한편,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과 논항구조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다. 많은 서술성 명사들이 여러 개의 논항구조를 취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사용된 논항구조<sup>7)</sup>를 확인하여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서술성 명사들의 논항구조는 사전적으로 가능한 하나의 구조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용례 분석 결과 서술성 명사들은 사전적으로 몇 가지 논항구조를 취할 수 있어도 실제로는 대체로 간단한 유형의 논항구조를 주로 취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 2> 논항구조와 서술성

논항구조	서술성 명사	형태의미분석말뭉치에서의 서술성	신문표제말뭉치에서의 서술성
AGT	일	0%	4%
THM	발전	87%	65%
THM	존재	4%	20%
EXP,THM	생각	0%	14%
AGT,THM	사용	100%	93%
AGT,THM	반대	47%	91%
AGT,THM	계획	44%	84%
AGT,THM	표현	33%	53%
AGT,THM	구성	26%	57%
AGT,THM	교육	22%	38%
AGT,THM	주장	14%	95%
AGT,GOL	참여	69%	93%
AGT,GOL	노력	32%	70%
AGT,COM	관계	0%	5%
AGT,LOC	생활	32%	75%
THM,GOL	의미	1%	3%
AGT,THM/THM,SRC	시작	64%	86%
AGT,THM,GOL	요구	35%	88%
THM,SRC,FNS	변화	57%	72%

7) 편의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논항구조만 나타내었다. 단, '시작'은 두 개의 논항구조가 동일한 비율로 나왔기 때문에 모두 제시하였다. 맨 아래에 '자리'와 '말'은 술어적 쓰임을 보인 예를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표시를 하지 않았다.

AGT,THM,GOL,CNT	대답	4%	0%
-	자리	0%	0%
-	말	0%	0%

해당 표에서 {AGT}는 0%, {THM}은 87%~4%, {EXP, THM}은 0%, {AGT, THM}은 100%~14%, {AGT, GOL}은 69%~32%, {AGT, COM}은 0%, {AGT, LOC}은 32%, {THM, GOL}은 1%, {AGT, THM, GOL}은 35%, {THM, SRC, FNS}는 57%, {AGT, THM, GOL, CNT}는 4%를 기록하고 있다. 동일한 논항구조를 가지는 명사들의 경우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의 서술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 어휘별로 서술성의 정도가 제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AGT, THM}의 논항구조를 가지는 서술성 명사가 7개로 가장 많았는데, 그 서술성은 100%~14%로 다양하였다. 이것은 의미상 이질적인 다양한 명사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의 자료를 통해 대략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AGT, THM}이나 {AGT, GOL}, 또는 {AGT, LOC} 유형의 서술성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구체물'의 의미 유무에 따른 서술성이다. "시작, 계획, 요구, 표현, 구성, 대답, 주장, 존재, 의미, 생각, 관계, 일, 말, 자리"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에 서술성 명사로서의 뜻과 함께 그러한 행위의 결과물 혹은 구체물로서의 뜻도 제시되어 있다.

<표 3> '구체물'의 의미 유무에 따른 서술성

표준사전	빈도 순위	서술성 명사	형태분석 명명치에서의 서술성	신문표제 명명치에서의 서술성
행위 + 구체물	5	시작	64%	86%
	25	계획	44%	84%
	27	요구	35%	88%
	36	표현	33%	53%
	51	구성	26%	57%
	14	주장	14%	95%
	68	대답	4%	0%
	30	존재	4%	20%
	10	의미	1%	3%
	3	생각	0%	14%
	4	관계	0%	5%

	2	일	0%	4%
	1	말	0%	0%
	13	자리	0%	0%
전체			16%	36%
행위	12	사용	100%	93%
	23	발전	87%	65%
	78	참여	69%	93%
	21	변화	57%	72%
	72	반대	47%	91%
	7	생활	32%	75%
	44	노력	32%	70%
	6	교육	22%	38%
전체			56%	75%

<표 3>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전 뜻풀이에 구체물로서의 의미가 명시적으로 제시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여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을 단정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전자의 경우 '시작, 계획, 요구, 주장'은 형태의미분석 말뭉치와 신문표제 말뭉치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술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어떤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 명제를 뜻하는 '계획, 요구, 주장'과 같은 서술성 명사들이 술어적으로 쓰이는 경향이 눈에 띄는데, 이들 명사의 술어적 쓰임과 비술어적 쓰임간의 관계는 나머지 명사들에 비해 더욱 밀접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미, 생각, 관계, 일, 말, 자리'는 현저히 서술성이 떨어지는데, 이들은 대체로 빈도 순위 10위권에 드는 고빈도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는 구체물을 가리키는 비서술성 명사로서 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때의 빈도 정보는 엄밀한 의미에서 서술성 명사의 빈도로 보기 어렵다.

후자의 경우에도 서술성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교육'의 서술성이 또한 비교적 낮게 나타나고 있다. 즉, 고빈도의 서술성 명사 중에는 이처럼 비술어적 쓰임이 두드러지거나 또는 비서술성 명사를 다의어로 가지는 명사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4. 서술성 명사와 동사의 공기 양상

우선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 과 기능동사 결합률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를 살펴보자. 이때 기능동사는 '하다, 되다, 당하다'만을 대상으로 한다.

<표 4> 명사의 '서술성'에 따른 동사의 공기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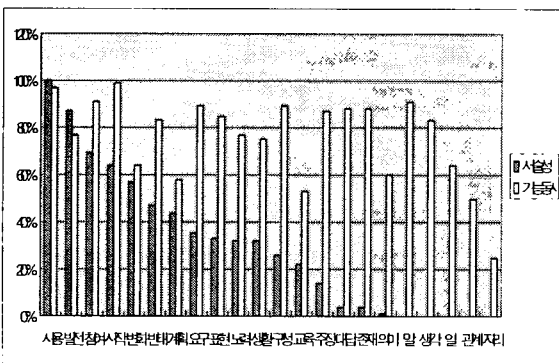
서술성 명사	기능동사	일반 동사	서술성
사용	97%	3%	100%
발전	77%	23%	87%
참여	91%	9%	69%
시작	99%	1%	64%
변화	64%	36%	57%
반대	83%	17%	47%
계획	58%	42%	44%
요구	89%	11%	35%
표현	85%	15%	33%
노력	77%	23%	32%
생활	75%	25%	32%
구성	89%	11%	26%
교육	53%	47%	22%
주장	87%	13%	14%
대답	88%	12%	4%
존재	88%	12%	4%
의미	60%	40%	1%
관계	50%	50%	0%
일	64%	36%	0%
생각	83%	17%	0%
자리	25%	75%	0%
말	91%	9%	0%

<그림 3>을 통해서 한눈에 알 수 있듯, 명사의 서술성 과 관계없이 대부분의 명사들은 기능동사와 높은 비율로 결합하고 있다. 특히, 서술성이 매우 낮은 '존재, 의미, 말, 생각, 일'이 기능동사와 공기하는 비율이 높은 현상은 설명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서술성'이란 것은 서술성 명사가 단독으로 어절을 이루고 있을 때 술어적으로 쓰이는 정도를 구한 것이다. 즉, 서술성 명사가 홀로 논항을 취하거나 혹은 맥락에 의해 명백히 술어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 때 선행요소와 서술성 명사가 이루는 구는 명사구일 수도 있고 동사구일 수도 있다. '서술성이 낮다'는 것은 결국 서술성 명사가 단독 출현하여 술어로 쓰이는 경우가 별로 없다는 의미로, 이러한 명사들은 기능동사와 결합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그 서술성을 발휘할 수 있다. 서술성이 낮은 명사들은 홀로 쓰일 때는 일반 논항 명사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기능동사와 결합하여 쓰일 때는 그 고유한 의미적 특성인 서술성을 십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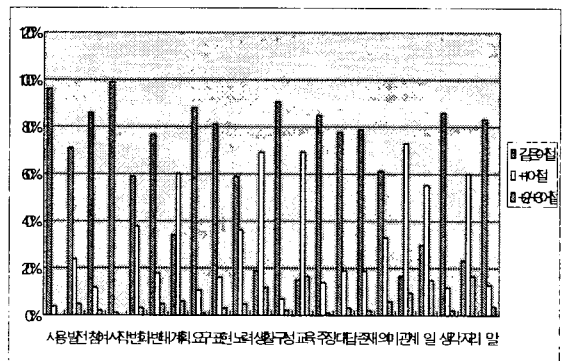
한편, 위의 그래프상에서 '관계'나 '자리'는 서술성 명사로서의 지위가 불안함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명사 자체의 서술성도 낮고, 기능동사와의 결합률도 상당히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명사는 그 서술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으므로 비전형적인 서술성 명사의 한 축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기능동사의 어절별 분포이다.

<그림 3> 명사의 '서술성'과 '기능동사 결합률'의 관계



<그림 4> 기능동사 '하다, 되다, 시키다'의 어절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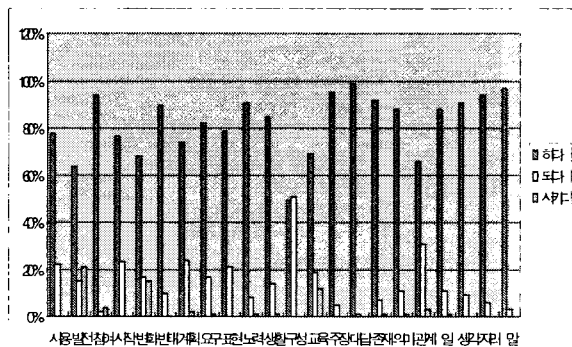


<그림 4>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명사의 서술성 정도와 무관하게 기능동사는 주로 서술성 명사와 같은 어절에 나타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단, '계획, 생활, 교육, 관계, 일, 자리'는 그 다음 어절에 기능동사를 취하는 비율이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명사들은 또한 '+2/+3어절'에서 기능동사를 취하는 비율도 다른 것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들 가운데 '계획'을 제외한 나머지 명사들은 서술성의 정도가 40% 이하로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서술성'과 '기능동사 결합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서술성이 매우 떨어지는 '말, 생각, 존재, 대답' 등도 기능동사가 이들 명사와 같은 어절에 나타나는 경향이 분명하게 관찰되므로 그러한 일반화를 짓는 것이 무리임을 이내 알 수 있다.

한편,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는 조사나 부사 따위에 의해 얼마든지 분리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대체로 분리되지 않은 형태로 쓰이는데, 이것은 그 둘 사이가 의미적으로 긴밀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사용하다'가 '사용'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된 단어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술성 명사와 공기하는 기능동사의 종류별 분포를 살펴보자.

<그림 5> 기능동사 '하다, 되다, 시키다'별 분포



대부분의 서술성 명사는 거의 '하다'와 함께 쓰여 문장에서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반면, '구성'은 '되다'와 공기하는 경우가 51%로 '하다'와 공기하는 경우보다 높았

다. 즉, '구성'은 다른 명사들보다 자주 '되다'와 함께 쓰여 피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관계(31%)', '계획(24%)'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시키다'는 '발전(21%)', '변화(15%)', '교육(12%)'의 순서로 많이 공기하였는데, '교육'은 '시키다'와 함께 쓰여도 사역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들 명사는 '되다'와의 결합 비율도 15% 이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전반적으로는 '하다'와 함께 쓰이는 비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 5. 결론

본고는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이 어휘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실제 자료를 통해 밝히고, 이러한 서술성 명사들의 일반적인 특성 및 사용 경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서술성 명사와 기능동사의 관계를 공기의 관점에서 조명한 것도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결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술성 명사의 빈도와 서술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일부 고빈도 어휘의 경우 실제로는 비술어적 의미(구체물)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서술성 명사의 논항구조에 따른 유형과 서술성 사이에도 별다른 관련성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서술성 명사의 논항은 기능동사와 함께 쓰일 때 보다 다양하게 실현됨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서술성 명사가 아무리 복잡한 논항구조를 가진다 해도 기능동사 없이 단독으로 쓰이면 한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특히 서술성 명사가 명사구를 이룰 때는 THM 논항이 단독으로 관형격 조사 '-의' 없이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셋째, 서술성 명사가 구체물로서의 의미를 함께 지닐 때,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서술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는 구체물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이 높았지만, 구체물의 의미를 갖는 서술성 명사 중에도 비교적 높은 수준의 서술성을 보이는 예들이 있었다.

넷째, 서술성 명사의 서술성과 관계없이 기능동사 '하다, 되다, 시키다'와의 결합률은 대체로 높았다. 다섯째,

기능동사의 어절별 분포를 통해 기능동사와 서술성 명사 사이의 긴밀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기능동사의 종류별 구성 비율을 살펴으로써 서술성 명사가 구성하는 문장의 의미 중 능동, 피동, 사동이 표현되는 대략적인 양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강범모(2001), “술어 명사의 의미 구조”, 『언어학』, 31, pp.3-29.
- [2] 김홍규, 강범모 외(1998~2005), 『21세기 세종계획 국어 기초자료 구축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
- [3] 송경화(2006), “신문 기사의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홍재성 외(2004~2005),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국립국어원.